

코로나에 폭염까지...쌓여가는 재활용품

집콕에 배달음식 주문 늘며 배출량 폭증...선별장마다 '수북이' 광주 하루평균 85t 발생, 보관 포화상태 우려...대책 마련 시급

☞ 29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대촌동 A재활용쓰레기 선별장. 선별장 입구부터 5m 높이를 겁 겁이 쌓인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직원들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한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지게차를 이용해 퍼 나르고 있었다. 지게차 3대가 쉴새없이 쓰레기 더미를 퍼내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직원들은 "많아도 너무 많다"며 혀를 내둘렀다.

☞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B(68)씨는 요즘 들어 경비 업무 외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일이 있다. 재활용쓰레기함을 교체하는 일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품 사용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름이 되니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게 B씨 설명이다. 이틀에 한번 꼴로 교체했던 200l 용량의 재활용쓰레기함은 요즘 들어 하루에 한 번도 벗출 정도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찌는 듯한 폭염까지 맞물리면서 일회용 쓰레기 배출량이 폭증하고 있다.

코로나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상황에서 무더위로 외출하는 대신,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늘면서 매일 쏟아지는 일회용품 등 재활용 쓰레기만 80t이 넘는 실정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활용 쓰레기를 담아둘 수 있는 공간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5개 자치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쓰레기는 올 들어 하루 평균 84.9t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3.3t에 견줘 1.6t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활용 선별업체에서 '성수기'라고 불리는 여름철, 쓰레기 배출량 증가가 볼 보듯 뻔한 상황에서 보관 공간이 여의치않은 중소 재활용 처리업체들의 쓰레기 수거·반입 거부라도 발생하게 되면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하루 평균 98.5t의 재활용 쓰레기가 발생했지만 여름철 4개월(6-9월)간 하루 평균 배출량은 104.1t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에서는 여름철이면 평소보다 근무 시간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북구지역 선별장도 올 여름 들어 반입량이 늘어났다. 이 선별장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양이 30t에 불과하지만 지난 6월부터 하루 평균 40t에 가까운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3층 높이로 쓰레기 더미를 쌓았지만 야적장이 부족해 옆 주차장에도 쓰레기를 쌓아놓았다"면서 "우리 시설에서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0t이지만, 맑을 때는 50t이 넘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식당 등 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보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게 업체측 설명이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품 등 재활용쓰레기 배출량 증가는 배달음식과 무관하지 않다. 당장,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유통 점포의 경우 지난 1일-23일 배달 매출량이 전달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했다.

지역의 한 배달업체 관계자도 "기온이 오르면서 외부 활동을 꺼려하는 경향 탓에, 배달 쿨(주문 건

수) 수가 20% 정도는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활용 업체는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나면서 일이 많아지긴 했지만 쓰레기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무더위를 버텨내고 있다.

지난해 kg당 294원 팔이었던 압축 폴리에틸렌(PE)의 가격은 403원으로 37% 상승했으며 생수병 등 압축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의 kg당 가격도 227원에서 334원으로 무려 47% 올랐다.

한 재활용 업체 관계자는 "최근 재활용 원자재 수입금지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 그나마 경영이 나아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9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한 재활용쓰레기 선별업체에 재활용쓰레기 수십 더미가 쌓여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풀린 방역 의식

유흥주점 몰래 영업 18명 적발 행정명령 위반 경찰 6명 회식도

당국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조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부서 회식을 진행하는가 하면, 영업을 금지한 시간을 넘어서 몰래 영업하는 술집들도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 방역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 사이에서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광주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의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단속했다.

이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된 유흥주점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은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걸어 잠가놓고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입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손님과 객객원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상무지구에서는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최근 2건의 집단 감염사례가 발생, 30명의 관련 확진자가 쏟아졌다.

경찰도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 명령을 위반했다가 빈축을 샀다. 광주서부경찰 소속 경찰관 6명은 지난 19일 부서 회식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당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회식을 했고 술에 취한 경찰관 1명은 출동한 경찰관을 어깨로 밀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불법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반과 기동대를 투입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10대 구속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범행을 은폐하려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범인도피교사 등)로 A(19)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5월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몰다가 정차중인 승용차 한대와 자전거를 탄 행인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후 경찰 수사로 붙잡힌 뒤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친구를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친구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학폭 사망' 유족에게 의견 물은 뒤...영장전담판사의 선택은

가해학생 3명 중 2명 영장 발부

"(판사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종근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학교폭력을 건디다 못해 숨진 고교생 A군(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유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판사는 A군에 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공통폭행·공통상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래 학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직후 유가족들을 법정으로 불렀다.

통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사가 피의자

를 대면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담당판사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저희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며 놀이를 빙자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며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A군 유족들인 부모와 이모가 법정에서 30여분 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가해 학생들과 마주했다. 이 때 유족들은 교복 차림의 학생을 향해 "왜 내 아들은 없어"라며 오열했

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유족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불렀다"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A군 아버지는 김 부장판사에게 "(A군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가해 학생들은 SNS에 올렸던 내용을 삭제하거나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끼리 SNS 단제방이 있어 동영상, 사진 관련 내용을 공유한다고 한다. 구속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범행 외에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판사는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라며 "알겠습니다"고 답한 뒤 유가족들을 내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가해학생 3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소년법(55조 제1항)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등 성인과 달리, 소년의 구속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A군 가족들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는 28일까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직접 답변을 받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1 지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